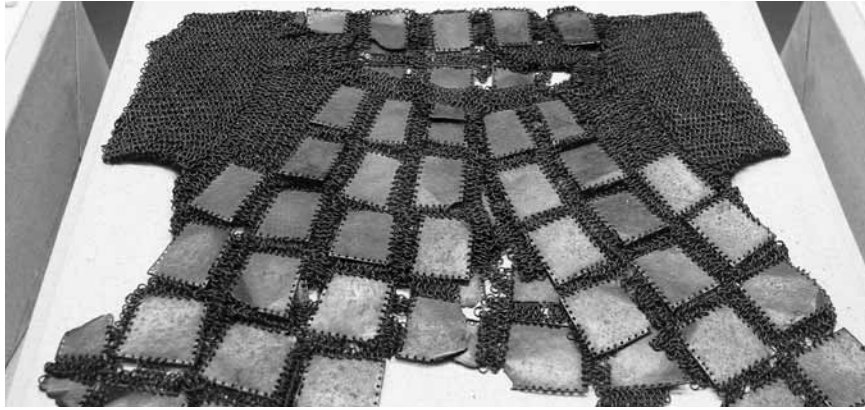


60년 만에 '광주 국보' 탄생하나

고려 명장 정지 장군 갑옷 복구,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



고려말 명장 정지 장군의 갑옷에 대한 국보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물 제336호인 '정지 장군 갑옷'(사진)은 고려말 장군이 예구를 물리칠 때 입었던 것으로, 고려시대 장군 갑옷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특히 '정지 장군 갑옷'이 국보로 승격되면 60여 년 만에 광주의 국보가 탄생하게 되고, 현존하는 광주 유일의 국보가 된다.

5일 광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지난 8월 말 문화재청에 '정지 장군 갑옷 국가 지정문화재 국보 승격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에서 국보 지정을 신청한 최초의 사례다. 문화재청은 연내에 전문가 3명 이상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뒤 내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국보 승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지 장군 갑옷(총 길이 70cm, 가슴둘레 79cm, 소매길이 30cm)은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갑옷이자 철판과 철제 고리를 엮어 만든 현

존 최고의 '경변갑'으로 한국 갑주사는 물론 세계 갑주사에서 중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복식사 전문가인 송의여대 박기영 교수는 '정지 장군 갑옷'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 희귀 유물', '작용자와 착용시기가 밝혀진 유물', '한국 갑주사의 열쇠', '경변갑의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유물' 등이라고 자문했다.

후손들이 600년 가까이 보관해온 '정지 장군 갑옷'은 1955년 전남대박물관장을 지낸 김창호 선생이 발견해 박물관에 전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1960

년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366호로 지정됐다. 이후 1976년부터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위탁관리·전시하고 있다.

최영, 이성재와 함께 고려말 3대 명장으로 불리는 정지 장군은 1347년(고려 충목왕 3년) 나주에서 태어나 1365년(공민왕 14년) 벼슬길에 올랐다. 고려 최초로 수군 창설 계획을 올려 전라도 안무사로 발탁됐고, 순천 도병마사가 되어 순천·낙양 등지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다. 1388년(우왕 14년)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종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등 공신에 봉해졌지만 1391년 병환으로 광주 지산

동에서 생을 마감했다.

태종은 1402년 정지장군에게 '경열(景烈)'이라는 시호를 하사했고, 1644~1645년 동명동 74번지에 그를 기리는 경열사가 세워졌다.

망월동에는 광주기념물 제2호 '정지장군예장석묘'와 경열사가 복원돼 있다. 현재 광주에서 발견된 국보급 유물은 없는 상황이다. 중심사에 보관돼 있던 '중심사금동석가여래입상'(옛 국보 제211호)과 '중심사금동보살입상'(옛 국보 제212호)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실됐고, 1963년 국보에서 지정 해제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과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국보 제143호)을 소장하고 있지만 광양과 화순에서 출토된 유물로 광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난해부터 '정지 장군 갑옷' 국보 승격을 추진해온 복구 관계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정지 장군 갑옷을 국보로 승격해 다른 갑옷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위상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지역사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수도권 학생도 남도학숙 간다



남도학숙 전경

2~3년제 대학생 포함

서울에서 유학하는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의 요람인 남도학숙 입사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20년 넘게 서울 소재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 문호를 넓히고 2, 3년제 대학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전남도와 함께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대학원생에게만 주어졌던 입사 자격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년제나 3년제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도 입사가 가능하다. 서울 은평구에 제2남도학숙이 건립중인 만큼 기존 대방동 기숙사를 제1남도학숙으로 부르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을 공동 운영하는 만큼 다음 달 정례회에서 조례를 함께 개정할 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부 정관도 바뀌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 가정 5%(유가족 등)였던 선발 규정을 성적과 생활정도를 각 50%씩 적용해 뽑기로 했다.

서울 대방동에 있는 제1남도학숙은 850명 수용 규모로 1994년에 건립됐으며 그동안 1만여명의 학생이 거쳐 갔다.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604명 규모의 제2남도학숙이 2018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적 못지않게 학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취지"라며 "문호를 대폭 확대한 만큼 많은 학생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등으로 입사자격을 국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감감, 거주 편의 제공 등 학술 설립의 취지를 벗어나고 학력차별"이라며 남도학숙 입사자격 개선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호남미래포럼 31일까지 접수

국가의 명예를 높인 호남인을 포상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이하 호남인상)이 제정된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 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 이사장 김정길, 선임대표 김성호, 운영위원장 문병호)은 국내 외에서 나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인 공적이 있는 호남 출신 인사를 찾아내 시상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을 제정하고 내년 1월 신년하례 모임에서 첫 시상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호남 연고자와 그들의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추천을 받은 뒤 분야별(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또는 세대별로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2017년 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호남미래포럼 신년하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호남지역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에 의뢰했다.

포럼은 9월 중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요강을 확정했으며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11월중 수상자를 확정한다. 문의는 호남미래포럼사무국(02-539-7714). /윤현석기자 chadol@

서울대 의대·마크로젠, 한국인 유전체 서열 완벽 해독

신약 개발 큰 도움될 듯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진 한국인의 유전체(게놈) 서열이 거의 완벽하게 해독됐다. 현재까지 나온 인류 유전체 해독 결과를 통틀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한국인 체질에 맞는 신약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체는 인간의 번식과 생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전 정보를 묶어 가리키는 말이다.

서정선 서울대 의대 유전체학연구소장팀과 국내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의 연구진 등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6일 자에 '특집 논

문'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유전체 정보는 200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HGP)로 첫 해독 결과가 나왔지만, 그 후에도 기술적 한계로 일부 읽지 못한 '공백'이 남아 있었다. 2009년 서 소장팀이 내놓은 한국인 대상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서 소장팀은 염기 서열을 기존 100배 길이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법을 적용해 공백으로 남았던 유전체 정보 190곳 중 절반이 넘는 105곳을 완전히 해독했으며 남은 공백 85곳 중 72곳은 일부를 읽어냈다.

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각각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도 구분하는 성과도 얻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 성과와 관련

해 "현존하는 인류 유전체 해독 결과 중 가장 완벽한 '표준'이라고 호평했다.

그간 과학자들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서 제공하는 인간 유전체 표준으로 질병 연구나 신약개발을 했으나, 여기 담긴 유전체 정보는 대부분 백인의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흑인의 것이어서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었다.

서정선 소장은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정밀의학'의 기술적 주도권을 한국이 선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시아인 1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파악해 정밀의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벨화학상 소바주 등 3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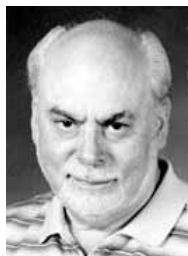
'분자기계' 개발 기여

올해 노벨화학상은 '분자기계' 개발에 기여한 장 피에르 소바주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5일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장 피에르 소바주(7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교수, 프레이저 스토더트(74)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베르나르트 페링하(65) 네덜란드 흐로닝엔대 교수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바주 교수



스토더트 교수



페링하 교수

노벨위원회는 분자기계는 "새로운 물질, 센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협 지역조합 '고용 세습' 여전

5년간 자녀 216명 채용

농협 지역조합의 임원 자녀가 해당 조합이나 인근 조합에 채용되는 '고용 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조합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인근 조합에 채용됐다. 이중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쳐 선발돼 채용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황 의원의측은 지적했다. 특히 216명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채용됐다.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했다. 또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같은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됐다.

황 의원은 "부모의 영향력 개입으로 조합 간 자녀 취업이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지난해 채용됐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올해 A 축협에 채용됐다.

황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며 "농협 내에 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7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게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진행 문과사범 자연인문등 수업이여 도입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는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10평 ▶ 감정이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2003년식) ▶ 감정이 4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이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양중음 ▶ 감정이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 ▶ 감정이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중음 ▶ 감정이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중음 ▶ 감정이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점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날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영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